

제21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2월 24일(화) 오전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례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3.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자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원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례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이주수·김진성·김철현·박환희·부두완·우재영·조달현·최병조·강감창·정준희 의원 발의) 2면
2.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3면
3.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현진호·고정균·김기성·김덕배·김동훈·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진수·김철현·김철환·김충선·김현기·김혜원·김황기·나은화·나주형·남제경·도인수·문병열·박종환·박환희·박희성·배상윤·부두완·서정숙·성무원·안훈식·양창호·오신환·우재영·윤기성·윤정용·윤학권·이강수·이국희·이대일·이상용·이우진·이재홍·이종은·이종필·이종학·이주수·이지현·이진식·이한기·임승업·정교진·정병인·정연희·조달현·조찬휘·지용훈·진두생·채봉석·최병환·최상범·최용주·최홍규·최홍우·하지원·하태중·한응용·허준혁·홍광식·양영식·강감창·유희숙 의원 발의) 4면
4. 서울특별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주수·고정균·김영천·김우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황기·박홍식·송주범·안희성·이금라·이우진·이종은·이지현·이진식·최상범·하지원·허준혁·유희숙·박래학·양준욱 의원 발의) 4면
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자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진성·고정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인배·김철환·김황기·나재암·박종환·박홍식·이강수·이종필·이주수·이한기·정연희·천한홍·최명렬·최병환·최주호·하태중·홍광식·강감창 의원 발의) 4면
6. 서울특별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은화·김기성·김기철·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황기·박덕경·송주범·오신환·최용주·한응용 의원 발의) 4면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진두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첫 임시회기 동안에 집행부 업무 보고와 각종 안전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 궁내청 소장 의례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11시 24분)

○ **위원장 진두생** 그러면 안전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용선** 존경하는 진두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이용선 사무처장입니다.

그동안 사무처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장이라든가 또 우리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라든가 또 서울의회 편집위원회 시에, 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시다만 오늘 공식석상에서 전체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 때는 기획담당관, 또 관광과장, 또 국장이 되어서는 초대 DMC단장과 시정 기획단장을 거쳐서 자치구에서 성북, 광진, 강북구 부구청장을 거쳐서 지난해 1월 1일자로 시로 복귀해서 제무국장을 하다가 이번에 사무처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처 주요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가장 주된 위원회로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의 주요한 업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의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저와 같이 1월 1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김재정)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

그래서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여기 내용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면 이것을 검토해서 의회사무처 업무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두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업무보고 건을 중단하고 안전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이주수·김진성·김철현·박환희·부두완·우재영·조달현·최병조·강감창·정준희 의원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진두생 그러면 잠시 업무보고 건은 중단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주수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뒤에 실음)

○위원장 진두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시 전 간담회 중에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이주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의케의 반환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특정한 사안을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명칭과 활동범위를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성·결의되었던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의 주문과 결의문 모두에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활동범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하고자 주문 중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을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한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문'을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문'으로 하고 결의문 내용 중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을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케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두생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달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

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달현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위원입니다. 이주수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일본궁내청 소장 의결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은 특별위원회라는 제도가 구성·결의 시 결의문에 표시된 목적과 활동범위가 제한되는바, 이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특별위원회 제도적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본 변경안에는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두생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이상용 위원님 기권하십니까?

○이상용 위원 기권합니다.

○위원장 진두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석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현진호·고정균·김기성·김덕배·김동훈·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진수·김철현·김철환·김충선·김현기·김혜원·김황기·나은화·나주형·남재경·도인수·문병열·박종환·박환희·박희성·배상윤·부두완·서정숙·성무원·안훈식·양창호·오신환·우재영·윤기성·윤정용·윤학권·이강수·이국희·이대일·이상용·이우진·이재홍·이종은·이종필·이종학·이주수·이지현·이진식·이한기·임승업·정교진·정병인·정연희·조달현·조천휘·지용훈·진두생·채봉석·최병환·최상범·최용주·최홍규·최홍우·하지원·하태중·한응용·허준혁·홍광식·양영식·강감창·유희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현진호·고정균·김기성·김덕배·김동훈·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진수·김철현·김철환·김충선·김현기·김혜원·김황기·나은화·나주형·남재경·도인수·문병열·박종환·박환희·박희성·배상윤·부두완·서정숙·성무원·안훈식·양창호·오신환·우재영·윤기성·윤정용·윤학권·이강수·이국희·이대일·이상용·이우진·이재홍·이종은·이종필·이종학·이주수·이지현·이진식·이한기·임승업·정교진·정병인·정연희·조달현·조천휘·지용훈·진두생·채봉석·최병환·최상범·최용주·최홍규·최홍우·하지원·하태중·한응용·허준혁·홍광식·양영식·강감창·유희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주수·고정균·김영천·김우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황기·박홍식·송주범·안희성·이금라·이우진·이종은·이지현·이진식·최상범·하지원·허준혁·유희숙·박래학·양준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주수·고정균·김영천·김우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황기·박홍식·송주범·안희성·이금라·이우진·이종은·이지현·이진식·최상범·하지원·허준혁·유희숙·박래학·양준욱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자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진성·고정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인배·김철환·김황기·나재암·박종환·박홍식·이강수·이종필·이주수·이한기·정연희·천한홍·최명렬·최병환·최주호·하태중·홍광식·강감창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자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진성·고정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인배·김철환·김황기·나재암·박종환·박홍식·이강수·이종필·이주수·이한기·정연희·천한홍·최명렬·최병환·최주호·하태중·홍광식·강감창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은화·김기성·김기철·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황기·박덕경·송주범·오신환·최용주·한응용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은화·김기성·김기철·김배영·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황기·박덕경·송주범·오신환·최용주·한응용 의원 발의)

○위원장 진두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자건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자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3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대표발의자 등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제출받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의결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3건의 심사보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잠시 중지한 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입법자료 조사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명은 지금 우리 의정서포터즈 하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 위원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조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6명인데 120명까지 이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106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열두세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120명으로 잡아놓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TO를 잡아놓았습니다.

○조달현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현재 103명입니다.

○조달현 위원 다 충원이 안 됐군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조달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용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달현 위원 서울시에서는 인턴사원들을 월 100만 원씩인가 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무처에서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업무가 어떤 인턴제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그러니까 직접 사무실에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든가 또 분야별로 우리 집행부 말고 민간부분 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정서포터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턴제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다른…….

○조달현 위원 그것은 처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정서포터즈는 실제로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채용해서 더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발상을 가져야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인 인턴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그랬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의정서포터즈하고의 어떤 상충문제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근본취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조달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 위원 의정서포터즈는 의정서포터즈 제도대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분을 의회에서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장기근무의 경우에 장기근무자가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는 일반 행정직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 별정직의 여러 유형의 형태가 있는데 비교적 기능직 중에는 방호원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또 전기실, 기계실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보면 한 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고요. 대개 8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고, 또 필기, 타자 여직원들도 대략 6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기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활성화라든가, 물론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그런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일해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부서에 많이 근무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또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명단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조달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능직은 조금 예외라고 판단되지만 일반직들이 다른 타 부서에 가는 것보다, 타 집행부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장기근무하시는 분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일반직 중에서.

○사무처장 이용선 일반직의 경우는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관의 경우에 4년 이상을 고르니까 세 사람이 나왔고, 그다음에 6·7급 이하는 4년 이상으로 볼 때 한 일곱 명 정도 나왔습니다.

○조달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본청에 있는 것보다 의회에 오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 오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회에 오신 분들은 또 가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겠으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이 인사교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보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보기준이 우리 여기에 있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집행부에서 이번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기준이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부서에 4년 이상, 한 기관에 6년 이상 그런 큰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조달현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인사기준을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기준을 받아서 그렇게 잘 적절하게 정말 우리 의회가 신뢰를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조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청사에 대한 부분을 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방호원하고 청원경찰 두 가지가 있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청원경찰은 한 사람 있고, 방호원은 아홉 사람 있습니다.

○조달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본청이나 여기도 가끔 보면 본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과 같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절할까,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방호원은 많은 반면에 청원경찰

한 사람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청원경찰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용선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보통 집단민원이 오게 되면 우리 자체적인 방호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남대문경찰서인데 경찰서에서 사전에 와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은 국가 경찰시스템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이 비교적 청원경찰 대신에 자체 방호원으로 대체를 하면서 청원경찰의 기능은 외부 경찰서에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 2개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무하면서 청원경찰의 역할하고, 청원경찰이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달현 위원 방호원은 정식이지만 청원경찰은 정식이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조달현 위원 임시적이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사법경찰적인 그런 것으로서 경찰청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허가를 받습니다.

○조달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봤을 때 집회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청원경찰 한 분으로서는 이것이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런 점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두생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두생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사무처장님, 저도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의 질의에서 청년실업문제 관

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적자예산을 편성해요,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재정적자형태로 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 그리고 SOC 투자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실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 적자재정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오히려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 시기만 쓰고 마는 식의 이런 형태의 재정지출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향후에 이번 경제위기를 정말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아주 관에 박힌 청년실업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음 경제위기극복 이후에 서울시 시정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부족한 부분을,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재정지출이 대부분 우리 중저민층에게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즉, 못사는 분들에게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가는 것이 어디냐면 입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집중화되어서 흘러가고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다음번에 등장하는 것이 사회양극화 문제예요. 다른 곳에서도 이 경제위기 다음 2012년 대통령선거나 총선이 있을 그때쯤 되어서 사회양극화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결국 2007년, 2008년 와서 등장했던 문제가 2080 사회양극화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런 생각이나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 경제위기가 2년 후에 또 다른 위기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 서울시의회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턴 일자리를 창출하실 때 관에 박히게 공무원들의 생각을 가지고만 인턴 일자리 만드시지 마시고 서울시민에게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향후 2년 후에, 5년 후에 이 재정지출 확대한 부분이 서울시의 발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당신들이 향후에 오늘 지나고, 이번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번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의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이 인턴들은 쓰고 나면 이 시기가 끝나면 끝이에요. 이 사람들 계속 우리가 공무원으로 고용할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요?

이 재정지출이 결국은 서울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공중분해 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이것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일자리창출 특위를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오늘 안건에 올라왔습니다만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도 반드시 홈페이지 안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라, 서울시민 전체가 이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3월에 곧 추경을 편성해야 돼요.

이 추경 편성하시면서 거기 나온 아이디어를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 일자리가 다음 2년 후에 서울시정을 발전시키는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양창호 위원님 아주 근본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창호 위원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 재정지출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세금 거두기는 천편일률적으로

거두면 되니까 아주 쉬워요. 무슨 세금 하나 매겨두고 거두기 쉬운데 문제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은 사회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리가 복지 형태로 주는 재정지출을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찰이나 다양한, 우리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입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죽 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입찰은 해먹는 사람이 해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재정지출 늘어난 부분이 결국은 입찰을 계속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 대기업들은 알짜배기가 되고 이제 중소기업들은 다 망해나가떨어지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입찰이 집중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방법을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만 안 하고 있지요.

서울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며칠 전에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다가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전문가가 많으니까 한번 의견을 취합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초안을 해드렸는데 정말 입찰이 특정한 기업에게 집중화되어서 해먹는 놈만 해먹고, 정말 입찰 한 번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중소기업들을 살려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2년 후에 다가올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고 그러지요.

이 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장님.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든지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해결해 내야 돼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처도 사무처이고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찾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인턴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경제가 더 나아가지고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면서 상시적인 정규직, 그런 일자리들이 똑같이 늘어나는데 아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어떤 과도기적으로 일시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거기에 한계성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양극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 한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의 유형이라든가 종류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입찰 집중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결국 입찰이 되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도 또,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그것이 중소기업 하청, 또 하청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덩달아서 다 같이 연쇄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재정지출이 꼭 집중화된 그런 어떤 대기업이라든가에 몰린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저변에 이렇게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단계별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오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도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처장님, 집행부가 잘 하는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은 조레나 우리 규칙으로 규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집행부가 이리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경제위기 다음에 올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있는 건수가 보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조달청 같은 경우에 특정회사의 입찰을 동일한 금액이 들어올 경우에 세 건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세 건 이하로. 건수 입찰을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다 못 해먹게, 입찰해서 낙찰 받아가는 건수를 일인당 몇 건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대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시의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까 인턴이 아니라 진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만들기보다.

이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석할 수 있게 개수를 늘려주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소기업 업체가 많이 참석한 컨소시엄에 대해서 가점을 주어서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낙찰되어 오는 금액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문제, 또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 지분율을 특정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50% 이상 하게 만드는 문제, 지금 한 40% 정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올려서 50% 이상 하게 만드는 문제,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입찰 집중화가 되어서 사회 양극화문제로 이어져 가는 이 경제위기 문제를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 차단시킬 수 있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입안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2년 후에 이 사회 양극화문제가 똑같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재정지출이 결국 불러올 문제들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의 우리 충인력을 동원해서라

도 우리 2년 후에 다가올 이 사회양극화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 내에 우리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들 유능하신 분들 많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 분들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요, 이것은 위급입니다. 이것은 취지는 좋지요. 그렇지요? 공감하시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양창호 위원 나쁜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제가…….

○양창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지방의회라는 것이, 지방의원님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4년 임기가 있다 보니까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지나서 임기가 약 1년 한 4개월 남았나요?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의회를 다루는 것이 대단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요구 하면 좀 10일 만에 갖다 주어야 됴데도 불구하고 한 30일 만에 갖다 줄 수 있고, 이런 것 비밀비해해요.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앞장서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의회사무처가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서울시의 회 회의규칙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의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저쪽 집행부로 날아가게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양창호 위원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돼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요구 자료에 대한 지연 제출의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간 제가 와서 통계를 보니까 비교적 조금 해를 거듭할수록 지연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15일이었습니다만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는 비율이 조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의장님

결계도 나지만 요구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그 사무처장 전결로 해서 바로 팩스라든가 유선으로 먼저 보고를 하고 또 자료가 오면 해당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간혹 보면 저도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비교적 요구자료 중에는 여러 부서가 수합해야 될 것, 또는 자치구 사항까지 수합을 해야 된다는가 또 자료 중에는 조금 보존 연수가 지나가지고 찾기가 곤란한 분야,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의사와 직원들, 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직원들과 해가지고 위원님들 요구 자료는 앞으로 최대한 기일 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사무처장님은 저하고 또 구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구원도 있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양창호 위원 구원. 서로 이제 풀어야 될 부분도 하나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양창호 위원 있는 것만큼 저는 만약에 의회사무처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나서서 챙기지 않으면 다음 임기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더니 팀장도 아니고 밑의 팀원 중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입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의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집행부에 날아갔으면 이 사람들이 그 사정을 문서로서 반드시 자료제출 대응을 해 주어야 될 텐데 구두로 때울 생각으로 탁 접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전반적인 집행부의 분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반기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것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나서서 긴장 분위기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상당히 의

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처장님께서 잘 해주셔야 돼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다시 한 번…….

○양창호 위원 분명한 것 하나는 만약에 이 느슨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가고 만약에 10일 이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징계요구안도 할 수 있다, 우리 의회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실히 자료 요구에 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처장님 앞서서 해 주시고,

세 번째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체육대회를 2008년도에는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09년 의원체육대회를 13페이지에 보니까 10월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왔어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네.

○양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10월에 우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죽 체크해 볼게요.

10월이면, 다음 지방선거가 2010년 5월에 있기 때문에 아주 지역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예요.

두 번째, 또 2009년 10월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 남은 날짜 3일인가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아니면 이 체육대회가 보궐선거 중간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5월로, 왜, 2008년 우리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는 5월로 당겨서 봄날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들 좀 여유가 생기고 따뜻한 봄날에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의장님하

고 상의하셔서, 왜냐 하면 10월에 큰일 나겠다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보궐선거 기간이 당장 엮인 데다가 우리 선거 임박해지니까 의원님들 지역활동 엄청 바빠서 참석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예를 든다면 2008년 10월 우리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체육대회와 체육대회 기간의 인더벌이 엄청 길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처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사무처장 이용선 네, 이것은 하여간 지금 안인데 지금 비교적 비회기 중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잠정 안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전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고, 또 보다 합리적인 그런 기간 동안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양창호 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두생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반갑습니다. 노원구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사무처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몇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의할 때 식전음악회를 합니다. 식전음악회.

○사무처장 이용선 네.

○이상용 위원 그런데 식전음악회, 이것 처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겠고, 담당 팀장 누구세요, 식전음악회?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처장님, 한 번도 안 들어보셨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아니, 한 번 했기 때문에…….

아주 실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큰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용환 의사와장 최용환입니다.

○이상용 위원 이것 지금 연 3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 위원 개최일하고 상·하반기 정례회 때 하는데 이것 지금 한 번 식전음악회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사담당관 최용환 비용이 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용 위원 400만 원?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이상용 위원 이것이 시립교향악단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을 우리가 하는데도 그렇게 비용을 주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 최용환 출연한 단원들한테는 일인당 1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의사담당관 최용환 단원들한테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용 위원 마이크 좀 대봐요.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출연한 단원들한테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성악가 분들은 성악가에 따라서 비용이 일인당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한 전기홍 교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성악가 그런 분들은 인지도에 따라서?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인지도에 따라서 줍니다.

○이상용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은 아이템도 좋고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의원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도 사실 낮간지럽더라고요.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의원들한테 해 주면 고맙고, 내가 말

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차라리 청소년 아이들 청소년의회교실 그때 시작할 때 해 주든가,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여가선용으로 듣는 것이고, 청소년 아이들은 와서 볼 때 배움이에요. 보고 멋있다, 나중에 성악가가 되고 싶든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든가 개네들이 봤을 때는 배움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이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처에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아이들 의회교실 시작할 때 차라리 아이들 위주로 하니 비용도 덜 들어갈 것이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보다는.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매회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이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에서 논의가 됐었다가 또 일부 의원님은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하는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회의 시작하는 연초에 한 번 하고 정례회 두 번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최식 할 때는 학생들이 한 400명 이상씩 옵니다. 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청석에서 같이 식전음악회를 관람합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없는 의사당을 활용해서 모의교실 할 때 하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의사담당관 최용환 청소년의회교실은 초·중·고등학생 11회하고 중학생 4회하던 것을 이번에 6회해서 총 17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17회 청소년의회교실을 할 때마다 음악회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무엇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어요, 세 번 하는 것으로?

○의사담당관 최용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것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누

가 반대할 의원도 없으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서…….

○**의사담당관 최용환**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그때 학교 선생님들 오시고 그러면 말이 금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최용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양창호**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선 의회를 들어오면 너무 어두워. 지금 뒤편 벽에 역대 의장님들 동판도 만들어 놓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우리들끼리 그냥 만들어놓은 것이고, 무슨 청소년의회교실을 하러 오든 방청을 하러 오든 업무 때문에 개별적으로 누구를 만나러 오든 의회가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적인 것이 열악해서 별관도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처음에 딱 의회문을 들어섰을 때 일반시민들이 첫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제가 생각해 보면 회기 중일 때나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물론 조명도 켜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뭔가 제 생각에는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사람한테 받든지, 딱 보면 저 골목 끝에 유리문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커피 물 저기하는 데 교섭단체 쉬는 방 휴게실 거기 그것만 보이고 어둡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한번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의회를 밝고 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이용선**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동감합니다. 집행부에 있

을 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회에 회기 때만 아니라 비회기 때 오면 저도 아주 그 인상을 받았고…….

○**박홍식 위원** 동굴 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아주 저희도 그래서 올 때마다, 아마 직원들은 조그만 생각에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닐 때는 좀 절약하자는 뜻에서 복도의 불도 꺼놓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제가 오면서 불을 켜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작은 일이 아니고 큰일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의회가 이렇게 누가 모르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왔을 때의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개인 가정이든 간에 집에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제가 보기에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처럼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어두컴컴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바깥의 무슨 큰 외형 간판만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리셉션을 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가 좀 더 밝고 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이 사항은 말씀은 안 하셔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과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서, 물론 많은 돈을 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청사 조도라든가 구석구석 어두컴컴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나가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여쭙보는 것인데, 상임위에 지난번 행감 때 노트북을 의원 2인당 하나씩 이렇게 조치해 줬다가 다 철수했는데요? 그것은 행감 때만 하기로 했습니까?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박홍식 위원 상임위원회예요.
 ○사무처장 이용선 위원님들 노트북이요?
 ○박홍식 위원 상임위원회에 노트북을 의원 2인당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행감 때 설치해 놨다가 지금 의사과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일반 상임위 할 때는…….

○의사담당관 최용환 의사과장 최용환입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에 전자회의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려고 노트북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때 할 때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한테 한 대씩 지급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자기 노트북을 가져와서 쓰면 되지 그것을 뭐 사주냐, 필요하다는 사람만 몇 대씩 해서 주라고 해서 그때 50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섯 대씩만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섯 대씩 해서 어느 의원님은 드리고 어느 의원님은 안 드릴 수 없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기다 저희가 자료를 넣어서 의원님들 두 분당 하나씩 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만 그때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 다섯 대씩을 나눠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 중에서 아홉 개 상임위원회에서 네 개 상임위원회만 그때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상임위원회만 그런 식으로 배정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배정하기 위해서 회수를 일단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박홍식 위원 그것을 위해서 새로 구입을 했었던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몇 대를 구입했었습니까?

○의사담당관 최용환 50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회당 다섯 대씩.

○박홍식 위원 그래서 전 위원회에다가 전부 다 그렇게 다섯 대씩 배치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위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의사담당관 최용환 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이 제가 달리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u-의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 운영위는 크지만 저쪽 별관의 상임위 가면 사실 좁아요. 옆의 위원님들하고도 좁고 앞뒤 책상도 좁은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아닌데 거기다 노트북까지 놓고 하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거기서 즉시 여러 가지 조례를 찾아보든지 법규를 찾아보든지 하는 것에 상당히 유용하게 썼는데,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없어져서 제가 여쭙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쭙보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용환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섯 대씩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께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포트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연결해서 쓰시면 되도록 그렇게 준비는 다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처장님, 여기 기획특집이라는 것이 뭐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이것은 언론에 보면 단편성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나가서 그냥 단편에 끝나는데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7대 의회 3주년을 맞이해서 의회가 그동안 해 온 실적 또는 조례안 발의가 뭐냐, 그런 큰 이슈를 가지고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박홍식 위원 어디에?

○사무처장 이용선 신문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박홍식 위원 일반 언론사에?

○사무처장 이용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2·3일이면 더 좋고, 하루라도 관련된 지면을 특별 면을 확보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홍식 위원 글썄, 그것은 우리 생산자의 의도이고 소위 말해서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은 그것이 실어줄 가치가 있으면 기획특집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실어줄 것이고, 얼마만큼 우리가 시의적절한 기사성의 자료를 뭔가 만들어내는가가 우선 중요하지

저는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두 가지인데 홍보에 대해서 공보실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자꾸 원웨이(one way)방식, 일방통행 방식의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의원님들 성향이기도 하고 우리 사무처 성향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사는 실어주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홍보기법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기자실하고의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안이 되지 않은 내용이 흘러나와도 좋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여론수렴 과정의 한 일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싹 만들어놓은 것을 세팅해서 보도자료로 뿌리려고만 하고 그것을 실어주면 잘했다고 하고, 그것을 실어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홍보방향을 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자들도 그렇게 나도 보내주고 저 친구한테도 보내주고 조선일보도 보내주고 한겨레신문에도 보내주고 내일신문에도 보내주는 기사는 별로 기자들이 그 비중을 높게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보실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창의 아이디어를 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 분들한테 구하되,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의회가 의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보내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취지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의원 상호간의 홍보입니다. 그것을 사무처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다른 소속된 상임위원들한테 전파하는 문제, 또 의원 상호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달하는 문제, 별관에 보면 7·8층에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 활용이 별로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치는 되

어 있는데.

그런 것을 누구 책임자를 두어서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 서로 의원 상호간의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공보실에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있고 그런데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것을 노력하겠지만 사무처에서 의원 상호간의 홍보,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 언론 관련 문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공감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좋은 신문 또 독자가 많은 신문에 잘 보도가 되려고 하면 우선 내용이 좋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내용이 좋으면 저희들이 써주지 말라고 해도 써주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얘기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조금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대안적 차원에서 이런 기획특집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 신문에 공히 똑같은 자료를 뿌리는 것보다 어느 한 신문이라도 비교적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안적인 그런 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 작게는 경조사적인 것에서부터, 또 크게는 우리 시의회로서의 어떤 정책대안 개발이라든가 입법자료 상호 공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창호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작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그런 것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침체되고 느슨한 조직문화, 제가 질타를 하고 변화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선 사무처장께서 금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생각보다도 조직 평가제도도 도입하고 직제개편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대하고 있는 바가 좀 크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중에 일단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잠깐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50대가 현재 어디에 있는 거지요?

○ 의사담당관 최용환 지금 재배정을 위해서 저희 의사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썼던 노트북이 재배정 계획을 언제 잡기 위해서 이번 2월 임시회 때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2월 임시회 때도 사용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묵힐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우리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센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그러면 3월 임시회 전에는 그것을 쓰게 되나요?

○ 의사담당관 최용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제가 볼 때 재배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느슨하다. 2월 임시회 때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 사무처장 이용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히 과정이라든가 절차가 어떻게 돼 있었고, 과연 지금 50대라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정말 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의원님들 말씀 중에도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풀로 갖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질충해서…….

○ 김철현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50대 정도를 구매하기 전에 적어도 그 정도의 수요조사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수요조사도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수요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쓰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2월 임시회 때나 3월 임시회 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빨리 그것을 해야 되는데 2월 임시회 때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배정 계획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느슨한 사고방식과 일처리방식이 빠르지 못하다, 신속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무처장 이용선 이 사항은 제가 다시 깊게 봐가지고, 아마 굳이 빨리빨리 지원을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과라든가 또는 각종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제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느냐 하면 이메일로 털렁 어느 날 들어와 있습니다, 이메일로.

언제 제출이 됐다는 것들이 적어도 그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전화가 오거나 해서 이런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어떤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801호 이런 자료함에 투입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전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메일을 한 2·3일 정도 열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자료가 벌써 도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시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원들에 대한 전화응대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장님, “저 누구예요.” 하는 이런 것들이 존칭은 아니지요? “상임위원회 어디 어디인데요.” 이것이 존칭입니까?

두 번째는 제 이름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그런데 주일대사 하시는 권철현 의원하고 이름이 성만 틀립니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하고는 이름 한자가 바뀌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올 때 권철현 의원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하고, 두 번째는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의원에 대한 예의와 권한에 대한 존중과 상호 파트너십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특별한 관심으로 직원들에게 항상 정신훈육도 시켜주시고,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좀 직원들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네.

○김철현 위원 문제없으시겠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요구…….

○김철현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이메일로만 제출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팩스로 제출하든 서류로 제출하든 이메일로 제출하든 그것을 선택하게 돼 있나요, 본인들이?

○사무처장 이용선 본래는 문서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제출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이메일이라든가, 또

우선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팩스라든가, 원칙은 문서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적어도 문서는 들어와야 되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문서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겁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여러 가지 사례들로 보면 상당히 의원님들 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 방법에 있어서 정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참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보면 서로 상대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보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통상 3·4일 안 열어보고 하는 게 일상인데 그것만 넣어놓고 그냥 제출했다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직원들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의원님 요구 자료에 대한 집행부에, 또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물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교육을 하겠고,

이 전화응대 방법, 이것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화 잘 받는 직원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일의 숙련도하고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신념으로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응대 요령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라든가, 안 보고도 다 상대방의 어떤 외모를 느낌으로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이 전화응대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추가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페이지에 보면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좀 무겁고 복잡하고 내용도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홈페이지를 좀 개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일정을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됐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이것은 부분적으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큰 아이টে를 잡아서 개편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적인 그런 의미에서 크고 작은 것은 그때마다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u-전자의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홈페이지가 됐고요. 올해 또 다시 유지관리 예산을 해가지고 몇 가지, 디자인을 조금 밝게 한다든가, 또 내용 중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이 조금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조금 화면에 보입니다.

○김철현 위원 유지 말고 디자인을 개편하거나 하는 이런 개편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한 1억 원 가까이, 구친 한 칠팔백 됩니다.

○김철현 위원 이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 가지고 추진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두 번째,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모니터인가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입을 한 네티즌을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지금?

○사무처장 이용선 접속자 수 말씀하십니까?

○김철현 위원 접속자 중에 보면 직접 회원으로 가입을…….

○사무처장 이용선 회원가입, 우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를 말씀하십니까?

○김철현 위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는 그 네티즌을 뭐라고 부르니까? 모니터라고 하나요, 아니면…….

○사무처장 이용선 모니터는 아니고요.

○김철현 위원 뭐라고 부르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모니터는 특수 목적을 주어서 하는 사람들이고요.

○김철현 위원 회원가입 한 사람들을…….

○사무처장 이용선 그냥 홈페이지 회원수라고 통상 얘기를 하지요.

○김철현 위원 홈페이지 그냥 회원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지는 않네요, 전혀?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를 홍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회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시정모니터단도 아니고 의회모니터도 아니고 전혀 어떤 형태의 이름을 갖고 있진 않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그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만여 명 된다고 했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별도로…….

○김철현 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게 이렇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건. 회원가입에 대한 절차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이름, 주소,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를 알아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요즈음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

데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이라든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을 보면 디자인도 아주 누추하지만, 이 디자인을 약간 개편하겠다는 것 이외에 네티즌을 부르는 통칭하는 이름도 없고 소속감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에 대한 관리는 이번 업무보고에도 전혀 빠져 있다, 없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유를 모르겠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는 무작위적으로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보다 일단 이렇게 특징이 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서울시의회가 발행하는 서울시 의회보도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어떤 관심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해도 무방합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창호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저번부터 좀 논의돼 왔던 우리 수석전문위원 다면평가가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상기간이 6개월인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방법이 지금 다 확정이 됐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구체적인 그런 시행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용선 네, 대략 말씀을 드리면…….

○김철현 위원 그러면 6개월간 업무추진 성과면 지금 현재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

으면, 추상적인 이런 평가항목이면 6월에 가서 이 평가항목을 그냥 작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도입되는 것이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평가방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수석전문위원들에게, 평가대상자들에게 당연히 고지가 되고,

두 번째,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매달 측정을 해 나가고 평가를 사전에 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그림일기를 한꺼번에 몰아 쓰듯이 평가방법,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석전문위원 다면평가 실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시행방법을 조만간에 확정을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평가자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초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대략 어떤 식으로, 어떤 주기로, 또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해서, 또 어떤 가중치를 뒤편하고, 또 평가자들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3월 초까지 만약에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방법이 결정이 되면 확정을 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처장님께서 시의회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사무처장 이용선 절차는 일반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절차를 따르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무처 우리 운영위원장님, 의장단 해가지고 최종 결재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물론 평가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방법들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잘한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하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좀 자극을 주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

한 끌어내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연봉 결정을 위한 성과에 반영하고, 그리고 하반기 교육대상자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가장 못한 사람 골라내기 이런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그 평가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같이 마련이 되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활용이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성과급 지급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과급에도 반영이 되고요.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꼭 이렇게 낮은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어떤 재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17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평가라든가, 조금이라도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결과는 부정적인 요소도 요소지만 긍정적인 요소로도 활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평가가 사실 시범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부분이 전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무처장 이용선 앞으로 이것은 단계별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김철현 위원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 첫 단추를 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끼워야 되지요. 여기에 대한 평가방법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활용도 제가 볼 때 신중을 기하셔서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잡음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 들어오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관리방안, 명칭 부여까지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그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지요.

(양창호 부위원장,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두생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 맨 끝에 질의하기 때문에 중복 아닌 중복이 되는데, 저는 인력에 대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의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이용선 지금 245명입니다.

○홍광식 위원 우리 의회 말고 서울시.

○사무처장 이용선 서울시는 1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홍광식 위원 거기서 우리는 245명인데 일반직이 95명, 별정직이 36명, 기능직 80, 이렇게 해서 이대호가 되는데 일반직은 승진이 되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일반직, 별정직 다 승진이 됩니다.

○홍광식 위원 수석전문위원은 4급 딱 맞은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용선 그것은 위의 상위직급에 대한 TO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승진은 어느 직렬에 상관없이…….

○홍광식 위원 계약직 이것하고 별정직 5급, 6급짜리도 별정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사무처장 이용선 별정직은 일반직하고는 신분보장은 똑같고요. 다만 어떤 지위에 따라서 특수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해서 일반직과 달리 특수자격요건을 두고 특별 채용하는 것이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무원…….

○홍광식 위원 1급짜리는 서울시에 몇 명이나 되지요?

○사무처장 이용선 1급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다섯 자리에, 또 1급 상당하는 직위들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이니 1급에 상당하는 계약직으로 보하는 직위들이 있기 때문에…….

○홍광식 위원 그것도 계약직?

○사무처장 이용선 계약직.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 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245명 중에서 일반직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를 희망합니까?

○사무처장 이용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보면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립대라든가 또 의회 몇 개 부서가 비교적 과거에는 선호부서였습니다. 선호부서라는 요인이 비교적 여러 가지 감사 안 받고, 또 집단민원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약간 특별수당이 상대적으로 있었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몇 개 부서가 선호부서였는데 근간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시 인사의 큰 원칙이 신인사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성과포인트,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성과에 대해서 포인트를 받아야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이 많지 않은 부서들은 근간 조금 지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도 약간은 직원들 사이에는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로 가서 일을 해서 성과포인트를 받아서 빨리 승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앞으로는 있어질 것 같습니다.

○홍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만 명에서 245명이면 상당히 로열젤리가 의회사무처에 와 있는데 전보할 때 좀 희망도 하고 여기에 오면 쉬는 곳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데다, 이런 쪽에 해서 그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있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의회나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쪽에 힘을 발휘해서 개혁시키고, 서울시행정을 집행부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면 내가 볼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승진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님은 별 정직에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잘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안 하고 남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페널티를 줘서 내보내야 되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승진, 전보할 때 승진의 혜택을 주고, 여기 오면 꼭 승진해서 거의 다시 나간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처장님은 여기 245명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의 일반적인 직원들의 수요는 비교적 좋습니다. 오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비교적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집행부로 갈 때 승진기회라든가 또 보직관리에 있어서 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의 수요는 비교적 상당히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재들, 좋은 능력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중요시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 의원들이 각 사무실에 자료조사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여기 245명이 적극 도와줘서 진짜 의정활동도 제대로 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승진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 막대한 예산 집행하는 기관이 정말 쇠신되고 개혁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그 중추역할은 245명 여기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을 믿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두생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사회 개원 중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진행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진두생 양창호 김수철 김철현

박홍식 이상용 조달현 홍광식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처장 이용선

의정담당관 김재정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황인식

정책연구실장 박노수